

고창 선운사 하안거 포살법회

남곡 스님 25주기 추모제 함께 열려

조계종 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7월 20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예경삼보에 이어 포살법사인 철산 스님(내소사 선원장)이 “대중이 모여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스님들이 “포살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포살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포살법회는 조계종이 발행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법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 교화의 원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남곡 스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남곡 스님 25주기를 맞아 본사로서의 위상과 벽과 문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이번 포살법회를 통해 스님들의 수행상을 점검해 날마다 좋은 날(日新又日新)이 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년 불심 하나된 자리

제11차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열려



7월 22~25일 전남 화순일대에서 열린 제11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전남 화순에 청년 불자들이 모였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 화순 일대에서 열린 제11회 파라미타 전국 연합캠프에는 청소년회원 1500여명과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화순리조트 아쿠아나 체험활동, 천불천탑의 운주사 문화유

산탐방, 산삼체험, 누에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통놀이체험이 펼쳐졌다.

22일 진행된 입제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스님을 비롯해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영조 스님(승광사 주지), 전완준 군수(화순군)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네팔 및 태국 화가 그림과 조각전 개최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있는 네팔 화가 3인과 태국 예술가의 전시회가 빛고를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롯데백화점 롯데화랑에서 7월 25일부터 개막한 전시회는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아시아의 빛들, 네팔, 태국 화가들의 그림과 조각전’을 주제로 시작한 전시회는 네팔 화가 등이 2개월여 동안 광주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느낀 광주와 남도의 풍광들을 화폭에 담았다.

전시회는 8월 1일까지 계속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4년 ‘백제불교’ 환생



익산미륵사지복원현장

공정 80% 진척...자료분석·복원 연구 활발



해체보수공사 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동양 최대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해체보수공사가 2014년 완공을 앞두고 80% 공정을 마쳤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해체보수정비공사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제30대 무왕(600~641)이 미륵사 창건 때 세운 9층탑이다. 탑이 주목받기 시작한 1910년 석탑 남·북쪽이 무너진 6층으로 남아있었다. 1915년 일본인 손에 콘크리트로 보수된 미륵사지석탑은 노후화돼 보기 흉하고, 향후 석탑의 붕괴가 우려되어 1999년 국가문화재위원회가 해체보수정비를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2000년까지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를 위한 준비부터 석탑해체보수정비를 위한 가설덧집 공사 등 공정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대형사업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해체보수정비를 진행 중이다.

당초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동양 최대 석탑이며 국보인 점을 감안한 신중한 해체 여부와 백제 장건 당시 건축기술 등 학술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14년까지 연장됐다.

올해 상반기중 해체된 석탑 부재는 518개로 석탑보수정비 해체전체 공정 80%가 완료됐다. 현재는 석탑 1층의 십자(+)통로 천정틀 윗면과 석탑 주변 남서쪽 석축은 모두 해체됐고, 북서쪽 석축은 일부가 남아있다.

현재는 서울대·카이스트 등 컨소시엄에 의뢰한 석탑보수정비에 활용할 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전성 평가연구 학술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1~2월에 해체되었던 1층 옥개석(지붕돌)을 향후 복원공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수정비 현장 마당에 해체 전 모습으로 임시 조립해 부재의 재조립상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석탑보수정비 사업

에 전북도내 관련 전문가 및 백제 아사달의 후예인 익산지역 석공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탑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자료들과 미륵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성분분석 하는 등 비교연구도 실시예정이다.

한편 미륵사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시 금마·삼기면 일대 민가에 소재한 94점의 석재를 조사하여 향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현장 관람은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올여름 익산미륵사지 복원현장을 찾아 백제의 숨결을 느껴볼까 바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기업과 복지시설의 아름다운 만남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세방가천재단과 협약

어려운 경제사정이 재원부족과 후원금의 감소로 이어진 고창 지역복지시설에 한줄기 서광이 비쳤다.

7월 23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관장 무공)와 고창 대강당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내장사 대원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세방그룹 이상을 부회장 등과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복지법인 세방가천재단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을 돕는 복운버스 구입비 4000만원,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800여권 도서 증정식 등이다.

세방그룹 이상을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방그룹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복지관과 고창군 어르신에게도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운사 의료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료진과 교직원, 학생들은 7월 24일 고창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료봉사단은 한의사 4명과 국악과 학생, 영정 촬영팀으로 구성됐다. 고창사회복지관(관장 무공)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를 찾은 의료봉사단은 지역 어르신 등에게 기초진단 후 침, 부항, 약 조제 등 진료봉사를 했다.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동국대 국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열려 지역 어르신들을 위문했고, 영정 사진촬영팀은 어르신들의 영정촬영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군산 동국사 종결 스님

교육·보시로 포교활성화

독도에 일본 야욕이 끊이지 않을 때 일본 강점기 잔재 청산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불심은 차별이 없다’고 전국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남은 동국사에서 남다른 포교와 불사에 힘쓰는 종결 스님을 만났다.

종결 스님은 2005년 동국사 주지 취임 후 신도조직부터 정비했다. 거사를 시행모임인 감로회, 상조회 역할을 하는 지장회, 합장단, 군산교도소 불자모임인 불심회를 새로 조직한 스님은, <동국의 길>이라는 자체 신도교육교재를 편찬해 년 2회 이상 신도교육을 실시했다.

동국사 신도회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교수 등 외부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질 높은 신도 교육 실시로 유명하다.

신도회 자체 노력도 부단했다. 신도회 임원들은 임원수련회를 개최해 신도임원 각자가 동기부여를 통한 신심 고취와 조직 활성화에 앞장섰다.



찰·의복 등 생필품을 전했다.

종결 스님의 보시는 이쁜 아니다. 스님은 2003년 한쪽 신장을 아무 연구도 없는 기독교 장로에게 기증해 새 삶을 열어 주었다. 이 보시행을 계기로 신장 이식자 부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신장 기증을 결정해 지금도 릴레이식 장기기증 운동이 줄고 있다. 스님은 이 밖에도 골수, 간, 시신까지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현재까지 100여회 이상 헌혈 했다.

“중생과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수행”

종결 스님과 하나된 신도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한마당 축제를 열고 한문학당, 캠프강화 등을 개설해 지역주민들과도 호흡하는 생활불교를 실천 중이다.

스님은 자광노인대학에도 정기적으로 출강해 법문하고, 월2회 군산교도소 재물관법회를 이끌며 장애인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종결 스님의 포교활동은 전국 교도소중 유일하게 불자모임이 없던 군산 교도소에 ‘교정인 불자모임’ 창설로 알 수 있다.

동국사와 종결 스님의 보시행도 주목할만 하다. 동국사에서는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쌀 등을 지원한다. 성지순례도 특이해서 삼사순례에는 반드시 불교복지시설을 한군데 방문해

2009년이던 동국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종결 스님은 창건 100주년을 기념해 현재 진행중인 원형복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불교문화유산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건 100주년 개산대제에는 일본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일 불교교류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군산시 등과 연계해 동국사를 돌아보는 관광벨트 계획을 확정해 일본 사람들의 동국사 방문이 늘 여야 전망이다.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동국사를 군산 포교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종결 스님의 목소리에는 다부진 각오가 배어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방범법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남, 충북 지사장 혜철 스님이 감시 카메라의 가격을 확실히 내리고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과 함께 전국 사찰 방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만족 확실한 서비스

사찰방범법의 가장 앞선 길입니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현대불교신문사 충청(대전, 충남, 충북)지사장 (www.dss.or.kr, cafe.daum.net/dasungsa)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특별법회 봉행 옥천 대성사

기본사양 설치비용

4CH DVR LCD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포함)

1년 무상 A/S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년회원 가입 시 정기점검 실시 (케이블보수, 기기 청소, 작동점검)

~ 알려드립니다 ~

직접방문하여 제품의 설명과 비교평가 및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 시공을 해드립니다.